

보도일시	2009. 6. 25(목) 석간		
배포일시	2009. 6. 24(수) 21:30	담당부서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
담당과장	문성유 (2150-7310)	담당자	강경구 사무관(2150-7313)

제목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2009. 6. 24(수), 16:30 ~ 18:30,
KDI 대회의실

○ 사회자 : 박수근 서울대 교수

○ 발제자 :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 토론자 :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이기영 경기대 교수,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원 등 11명

○ 토론 주제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

i)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 및 평가

ii)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

□ 기획재정부는 '10년 예산안 편성,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금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

◆ 발표내용 요약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 추진
 - 은행을 통한 지원¹⁾,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실물 파급을 차단
 - 1)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 등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은행과의 MOU 체결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
 - 지원대상과 요건의 완화는 지원의 부실 위험성을 증대시킬 우려
 - 신용보증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급증 등은 크게 유의할 부분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 >

- 신용보증 : '09.5월말 신보, 기보는 연간목표치(신보 38.4, 기보 17.1조원)의 97.7, 92.6% 달성, 보증부실율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신보 5.4, 기보 5.5%)
 - 보증비율 확대(85→95~100%)로 신규보증 중 전액보증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 (신보 : '08년 31.2→'09.3월 61.6→'09.5월 →73.2%, 기보 : '08년 10.9 → '09.3월 66.6→'09.5월 68.1%)
- 정책자금 : '09.5월말 지원실적이 '08년을 상회('08년 3.2조원→ '09.5월 3.6조원)
 -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08년 56.2% → '09.5월 81.6%)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시장친화성 제고를 위해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화 추세를 보아가며 재정운용방향을 조정할 필요

- ① 신용보증비율 확대 등 완화된 지원조건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유도
- ②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지속적인 비중확대 보다는 위험관리가 가능한 적정 수준에서 운용내실화 도모
- ③ 지원자금의 용도의 사용에 대한 감독 등 사후 집행관리 강화

◆ 토론쟁점

□ 김동환(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증가는 정책금융의 양극화 현상이 구체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한계기업이 정책금융으로 집중되어 향후 정책금융이 부실화될 가능성
- 신용대출비중 증가는 비재무평가의 타당성·신뢰성 제고가 전제될 필요

□ 신길홍(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이사)

-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부실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
- 향후 경기회복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위기하에서 완화하였던 신청대상 및 용자조건의 원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 용자제한부채비율 완화, 용자한도 확대, 운전자금 비중 확대 등
- 직접대출 기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징후 발생시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등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토록 노력

□ 김진형(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 호전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현행 지원규모 및 기준을 당분간 지속시킬 필요
- 특히, 시중은행이 취급을 기피하는 신용도 취약 중소기업 지원과 기술성 평가비중의 확대를 위해 직접대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필요
- 다만, 가수요 방지를 위해 운전자금 등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대출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

□ 이기영(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을 존속시키는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
-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도 금융지원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선별기능을 제고할 필요

□ 유태준(신용보증기금 전략사업이사)

-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급격한 선회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
- 특히, 정부지원 핵심분야(수출·창업·녹색기업) 및 금융기관 특별출연에 따른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보증비율 상향조치를 유지할 필요

□ 이상현(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 정책기조의 변화시점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 외에도 실물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확인되는 시점이 바람직함
- 그동안 정부는 은행에 대한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 노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음
- 다만, 향후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시장기능이 정상화될 경우 보증비율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정책 인센티브의 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김용환(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이사)

-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지원된 보증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
- 지원된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등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나, 보증지원의 정책적 지원효과(기술수준 향상,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증지원에 활용할 필요

□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책금융의 지원규모 및 속도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구체적 실행에 대한 최적점(optimal point)을 찾기가 곤란
- 정책 시행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며 정책당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문성유(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

- 정부의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나 완전한 회복이라 보기는 곤란
- 또한, 향후 경기회복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측면
-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재정운용방향은 금번 금융위기의 회복여부 및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참고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사회자 및 토론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사회자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자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원
토론자	유태준	신용보증기금 전략사업이사
	김용환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이사
	신길홍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이사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원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김진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
	우상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문성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